

다큐영화 <순종>, 버려진 땅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



11월 17일 극장 개봉 앞두고 배급과 홍보 작업 한창

CBS가 최초로 만든 극장용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이 완성됐다. 1년 6개월여의 기획과 취재, 제작 기간이 소요된 해외 선교사 다큐멘터리 <순종>은 지난 8월 22일부터 3주간 3부작 다큐로 CBS TV를 통해 방송됐고, 이후 편집과 후반작업을 거쳐 극장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순종> 제작진은 올해 1월 필리핀 막탄섬 빈민가를 시작으로 3월 우간다 오지 덩기디 마을, 5월 시리아 난민촌이 형성된 레바논 자흘레 지역에서 강도 높은 촬영 일정을 소화했다. 나라별로 약 1개월의 촬영 기간 동안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 모습은 물론 삶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갈등과 화해 상황 등 인간적인 면모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밀착 취재를 진행했고,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오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길게는 하루 15시간의 촬영을 하느라 카메라 감독들의 손목과 팔뚝에 염증이 생겨 귀국 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카메라에 담긴 수만 분 분량의 영상은 다시 프리뷰와 편집 구성을 거쳐 6개월 여 동안 조각 조각 맞춰져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

우간다, 아빠와 딸의 대화

우간다의 목적지는 북부 아무르 지방의 평야와 흙집 밖에 보이는 것 없는 시골 마을 덩기디. 우간다는 1997년부터 심각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덩기디 마을은 LRA(신의 저항군)라 불리는 반군 세력을 배출한 아츨리 부족에 속한 곳이었다. 차별받던 부족의 이익을 지키다며 시작된 내전은 시간이 갈수록 왜곡되었고, 반군은 자신의 부족 사람들에게 집단 학살과 강간, 어린이 유괴, 신체 훼손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혼돈의 정국을 이끌었다. 부



<순종> 제작진은 올해 1월 필리핀 막탄섬 빈민가를 시작으로 3월 우간다 오지 덩기디 마을, 5월 시리아 난민촌이 형성된 레바논 자흘레 지역에서 강도 높은 촬영 일정을 소화했다.

모들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덩기디 아이들은 지금도 악몽과 발작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참상의 한 가운데 2006년 찾아온 고 김종성 목사는 고집불통 아저씨였다. 세계 각지 가장 가난한 곳만을 찾아다니며 있는 재산은 물론 빚까지 지며 퍼주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쌀 떨어진 날이 더 많을 정도로 방치했던 무책임한 가장. 아내는 외상으로 쌀과 연탄을 구하려 다녔고, 딸들은 도시락 쌀 형편이 안 돼 초코파이 하나로 점심 때우며 아빠에 대한 원망을 가진 채 성장했다.

현재 덩기디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학교 '킴스 크리스천 스쿨'을 책임지고 있는 맏딸 김은혜 선교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7년 전 심장마비로 사역지에서 삶을 마감한 아빠, 그리고 증오했던 아빠의 묘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사역을 이어받은 딸.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그 둘의 대화를 어렵게 따라가던 제작진은, 촬영 막바지에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으로 그 해답을 찾게 된다.

"아빠가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

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그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삶과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그걸 알고 있구나..."

레바논, 아이들이 꿈꾸는 슬픈 천국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라크·요르단을 거쳐 슬픔의 땅 레바논으로 넘어온 김영화 선교사, 그리고 난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자 5월 레바논으로 향했다.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레바논 중부 자흘레.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110만 명의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넘어 왔고, 그 중 20만 명이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자흘레 난민촌에 모여 살고 있다.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인들을 그저 방문객 일뿐이라고 치부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공식적인 난민캠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20~100개의 천막들이 웅기종기 모여 도로 곳곳 수천 군데로 흩어져 무리를 이루고 있고, 특히, 난민 신분으로 위장한 IS 대원들도 간혹 있어 레바논 정부로부터 삼엄한 불심검문이 자주 있다.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난민촌으로 향했다. 난민촌은 유독 고아와 과부들로 넘쳐났다. 그 가운데 어른들의 전쟁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을 들여다 보기 위해 김 선교사가 운영하는 난민촌 천막학교에서 그림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전쟁은 어떤 것일까? 초등학교생들이 그린 것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림들이 펼쳐졌다.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목격하고 느낀 아이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겼고, 그림 속에는 군인·탱크·미사일·각종 무기들이 가득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전도서 7:4)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초상집과 같은 낯선 레바논 땅에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오게 된 김영화 선교사.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내는 영적 최전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젊은 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외면 할 수 없어 이 광야에 새로운 길이 나고 꽃피는 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묵묵히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고 있다.

CBS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선물

현재 <순종>은 11월 17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배급과 홍보 작업이 한창이다. 유명한 CCM '사명'의 이권희 작곡가가 음악감독을 맡아 주제곡과 테마 음악 등 OST가 만들어진 것도 처음 시도한 일이다. 다큐영화 <순종>은 'CBS가 한국교회에 주는 선물'이다. 가장 낮은 땅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 로마서 말씀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비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영화 <순종>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가 부른 영화 주제곡의 가사처럼, 영화를 본 관객들이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CBS 암송성경 '와글와글1189'



1,189명(팀)이 성경 1장씩 암송해 영상으로 담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CBS는 암송성경 '와글와글1189'를 준비하고 있다. '1189'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 장수 1,189장을 의미하며,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CBS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다섯 가지 중 하나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다음세대'를 일으킬 기반을 닦고자 한다.

성경암송이 고리타분하거나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생을 이끌어 주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기획되었다.

'와글와글1189'는 1,189명(팀)이 신구약 성경 1장씩 암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세대가 주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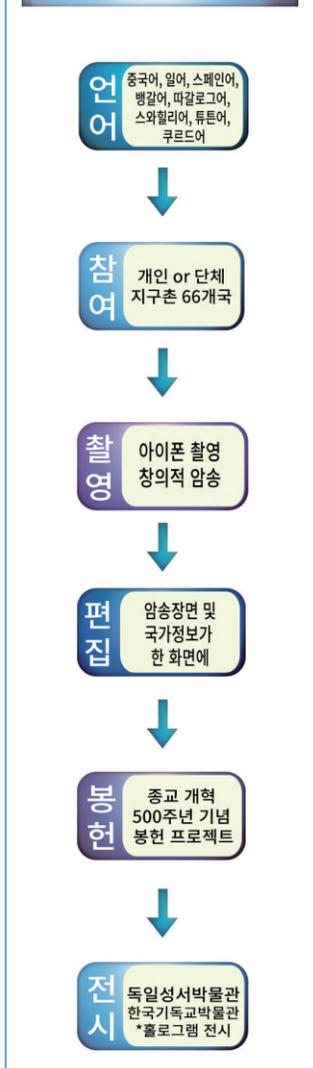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성인들도 다음세대와 함께 어울려 팀을 이루면 '와글와글1189'에 함께 할 수 있다.

'와글와글 1189'는 각권의 첫 장을 전 세계 언어로 현지 어린이들이 암송하며 국내에서는 도시와 낙도, 개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세대 간 팀 구성으로 참여하는 지구촌 말씀 축제이다.

CBS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에 참가하여 선발된 팀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역사적인 암송성경 제작과 봉헌에 함께하거나 홍보·후원하기 위한 분들은 02)2650-7931, 7932로 문의하면 된다.

암송성경 제작 구성도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숨어서 번역한 독일어 성경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고 소수의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다. 성경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 독일어를 비롯해 각국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발간은 평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종교개혁정신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기록체가 되었다. 말씀에 대한 진리는 교회나 성직자의 목소리가 아닌 성경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와글와글1189'는 각 권의 첫 장을 전 세계 언어로 현지 어린이들이 암송하며 국내에서는 도시와 낙도, 개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세대 간 팀 구성으로 참여하는 지구촌 말씀축제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CBS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

1차 예선, 10월 15일 CBS 본사에서 진행

CBS는 다음세대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CBS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을 준비했다.

1차 예선은 10월 15일(토) CBS본사에서 진행된다. 그 외 지역교회와의 연계를 통한 예선도 진행 예정이다.

'요절복통'에 참가하게 되면 암송성경 봉헌자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CBS 암송성경 '와글와글1189' 제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외 문의사항은 02)2650-7931, 7932로 문의하면 된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음세대를 위한 CBS 성경암송대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119:105)



우리의 희망, 다음세대를 위한 CBS 성경암송대회에 도전하세요!

- 참가자격 | 개인 - 주일학교 학생 (고등부 이하)
단체 - 성도 12명으로 한 팀을 구성, 최소 6명은 고등부 이하 학생으로 구성, 이외 참가자는 연령제한 없음
- 참가비 | 개인 10,000원, 단체 5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212-001999-13-079 (예금주 : (재)CBS)
- 접수방법 | CBS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이메일, 팩스, 우편)
- 시상안내 | 개인 우승-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권 2매
단체 우승-국내 성지순례 여행권 12매

CBS 성경암송캠페인에 신청하세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성경 1189장 전체를 암송하여 종교개혁일에 봉헌하려고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 | CBS 홈페이지(www.cbs.co.kr)를 참고 또는 02)2650-7931로 문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슬로건 '나부터 □□' 캠페인 확정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기념 메달 발행 등 행사 풍성

종교개혁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는 리포메이션(Reformation)이다. 가구를 리폼한다, 구식 양복을 리폼한다는 정도로 일상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개혁' 또는 '변혁'이라고 번역하면 합당할 것 같은데 굳이 '종교'라는 말을 개혁 앞에 붙인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일본과 중국과 조선)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까닭이었다.

CBS가 그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큰그림에는 몇가지 원칙을 두었다. 한국교회와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며 내일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전신성행사는 지양하고 실사구시적 사업으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변화의 동인을 제공한다는 자세가 그것이다.

한국교회 슬로건 '나부터 □□'

재단이사회에 참여하는 11개 교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단 실무자회의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CBS와 국민일보가 인터넷 공모를 통해 마련한 슬로건 '나부터 □□'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 보고되어 한국교회 슬로건으로 자리매김했다.



CBS는 한국교회 슬로건을 받아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를 2017년 연중캠페인으로 확정하고 힘을 보태주었다. CBS는 국민일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나부터'공동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이다.

종교개혁 심포지엄 개최

CBS는 국민일보와 함께 오는 10월31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세 차례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화와 갱신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0월 3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1차 심포지엄은 500년전의 종교개혁 정신을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어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한국교회 주요 석학들과 목회자들이 발제하고 논찬한다.

'교양 종교개혁 이야기' 출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역사인식의 확산 속에 '교양 종교개혁이야기'가 기독교한국루터회의 후원을 받아 곧 출간된다. 신학교수들이 집필하고 전문 작가가 다듬어 신학 비전공자들도 쉽게 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CBS가 마련한 종교개혁지순례는 결코 쉽게 마련되지 않았다. CBS의 해외여행 파트너 참좋은여행과 협의를 시작한 이



사진은 금, 은메달 요판화 세트(위), 금메달 요판화 단품(가운데), 은메달 단품(아래).

후 완전한 상품이 나오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다. CBS가 먼저 여행지를 선정하고 답사를 통해 동선을 기획하고 호텔과 식당의 수준을 일일이 점검했다.

종교개혁지순례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의 의미를 확산하고 성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기회

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지순례는 두 가지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독일·체코 등 5개국 10일(350만원) 상품과 영국이 빠진 4개국 9일(320만원) 상품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메달 제작

기념메달은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오늘 한국교회가 이어받아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선물이 될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도 첫 번째 '프리미엄 메달' 사업을 CBS와 함께 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 메달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도 미래가치가 크다.

99.9% 순도의 순금 31.1그램으로 제작되는 금메달은 250만원, 같은 순도, 같은 중량의 은메달은 11만원, 금메달과 은메달 세트는 265만원으로 책정됐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금메달 5,000개 은메달 50,000개가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한정 제작으로 판매된다. 올해 10월 1차 마틴 루터 메달을 시작으로 내년 10월까지 칼빈과 웨슬러 메달 등 3차까지 발행된다.

국내 최초 방영 드라마 "A.D. 천국과 제국"

세계사를 바꾼 기독교의 시작을 그려낸 웅장한 서사시

A.D. 33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한 젊은이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이후의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로 나아간다. 드라마 <A.D. 천국과 제국(The Bible Continues)>은 이 역사적인 현장으로 크리스천들을 안내한다.

CBS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대한 행보를 다룬 감동 대작 <A.D. 천국과 제국(The Bible Continues)>을 2016년 8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CBS TV를 통해 방영중이다. 총 12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2013년 전세계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감

동을 안겨 준 작품 <더바이블(The Bible)> 10부작의 후속편이기에 제목이 "The Bible Continues"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룬 <2013 더바이블>은 영화 편집을 거쳐 <선오브갓>(2013)으로 개봉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 최초 방영 드라마 <A.D. 천국과 제국>

전세계 시청자들은 <더바이블>의 후속작인 <A.D. 천국과 제국(The Bible Continues)>을 기다려왔다. 제작자인 마크 버넷과 로마 다우니가 "왕좌의 게임"이 성경을 만났다고 표현할 만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제작비와 인력이 투입된 대작이다. 예수 시대의 삶을 보여 주기 위해 철

저한 고증과 대규모 세트, 동물들까지 동원했다.

제작사인 MGM은 <007 시리즈>,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랑은 비를 타고>, <닥터 지바고>등 수많은 대작들을 탄생시킨 할리우드 최대의 영화제작사로 손꼽힌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인 NBC에서 2015년에 방영되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국내에서는 오직 CBS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

A.D. 33년, 사도행전의 서막, 기독교의 시작

드라마 <A.D. 천국과 제국(The Bible Continues)>은 A.D. 33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과 세계사를 바꾼 기독교의 시작을 그려낸 웅장한 서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A.D. 천국과 제국> 12부작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0분 오직 CBS TV 채널을 통해서만 HD 고화질로 만날 수 있다.

부활을 통해 거듭난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에 맞서 선교의 길로 나서는 과정이 뛰어난 영상미를 통해 펼쳐진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0분 CBS TV 채널을 통해 방송

A.D. 천국과 제국(The Bible Continues)> 12부작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0분 오직 CBS TV 채널(Skylife Ch 182 / 각 지역 Cable TV / Olleh TV 238,

SK Btv 550, LGU+ TV 181)을 통해 HD 고화질로 만날 수 있으며 예고편 등 관련 영상은 CBS TV 공식 페이스북 계정인 CBS Joy4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방송일정으로, 본방은 매주 월 저녁 8시 10분, 재방은 매주 화 새벽 3시, 토 밤 9시 50분, 직전 회 방송분을 포함한 2회 연속방영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찾아간다.

후원자와 함께 드리는 방송선교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낮 12시에 방송

CBS의 특징은 주인이 따로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방송이다. 까마귀를 통해 보내시는 귀한 후원이 있어 365일 방송에 불이 켜진다. 아무리 방송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CBS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왔습니다”라며 후원 부서를 두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다. 후원하시는 분들의 감동



스토리를 나눔으로 그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이다. CBS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CBS 방송선교예배를 드리고 있다. 방송선교사(방송 후원자를 지칭)들과 시청자들의 증보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2016년 6월 20일부터 방송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낮 12시에 방송되는 '하나님을 기

쁘시게'에는 직접 방송선교사들과 소통하는 장이 열리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여섯길음교회 광명훈 목사(前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가 함께한다.

방송뿐만 아니라 매월 첫째 주 수요일 7시30분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개녹화 예배가 드러져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365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방송과 예배 문의사항은 02)2650-7931, 후원 문의는 02)2650-7004로 하면 된다.

CBS 후원 스토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

사례 1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가 생각나는 권사님이 한 분 있다.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선교교.

“좋은 일이 있어 금으로 하나님께 꼭 예물 드리고 싶은데 받으려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권사님의 간곡한 부탁에 차를 몰고 찾아가 주소지는 한 몸 누이기도 좁은 단칸방에 대낮인데도 움막처럼 캄캄한 곳이었다.

사실 금을 후원하신다고 해서 넉넉한 분이시리라 생각했고, 꼭 그렇길 바랐지만 지금까지 만나고 접한 후원자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 중 한 분이지 않을까 싶다.

하루 벌여 하루 사는 남루하기 그지없는 살림살이. 그런 권사님이 꺼내놓으신 것은 보증서와 함께 고이고이 보관하고 있던 금 열 돈이었다.

“폐지를 주워 수십 년을 모은 돈으로 병들면 쓰려고 준비해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얼마 전에 기



초수급자로 선정이 됐어요. 이제 월 30만원을 나라가 대준다고 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많은 걸 갖고도 늘 결핍감으로 허기진 이 세상에서 권사님의 고백은 마음에 물결을 일으켰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CBS 방송선교 사역에 귀하게 써 주세요.”라며 기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던 권사님.

옥합을 깨뜨려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당신의 가장 큰 것을 드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권사님. '마리아를 기억하라'하신 예수님이 권사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

사례 2 몽골의 게르 성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느르자르갈, 몽골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되어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갑작스레 한국에 오게 된 우느르자르갈 집사님.

우연히 채널을 돌린 TV에서 몽골의 게르 성전을 본 순간, '나는 몽골에 못 가지만 CBS에 후원을 하면 이 분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2015년 7월 CBS와 첫 연을 맺은 우느르자르갈 집사님.

CBS에 후원과 함께 부탁한 첫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이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다시 통화한 집사님은 CBS가 함께 기도해줘서 응답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남편이 사기를 크게 당했는데, 돈을 받으려고 처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버지학교도 마치고 마음이 많이 열렸다.'

하나님께 드린 건 작은데 이렇게 나만 응답받아도 되는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신 것이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느르자르갈 집사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집사님은 지금도 가끔 7004 후원전화로 전화하셔서 여느 한국아줌마 못지않게 수다도 많이 떨고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눈다.

외국인으로서 힘든 것도 있지만 말씀을 많이 읽었고, 특히 CBS 방송을 통해 때를 맞춰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CBS에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 어디서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타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CBS와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거예요. CBS 사랑합니다.”

CBS선교후원안내

선교후원회 : 02. 2650. 7004

국민은행 : 884201-04-058501 (재)CBS

선교후원ARS : 060. 808. 0000

우리은행 : 1005-001-270120 (재)CBS

신천지, 끝나지 않은 싸움

신천지의 공격 전략 루트 3가지

신천지는 9월 잠실 신도총 집결대회 이후 이전에 벌였던 공세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천지의 공격 전략이나 루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 교회를 공략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다.

신천지 집단은 이미 각 지파별로 충성경쟁에 돌입해 주요 교회들의 대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 앞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 예배 방해 행위는 이미 각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것이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예배시간에 맞춰 반

복되는 교통방해나 위협, 소란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가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집단의 집결과 행위, 주동자의 신원 등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 방법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성명미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는 유명 목회자들을 향한 개별공략 전술도 병행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이나 강연, 저술 내용을 분석해 논박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교회 주변에서 배포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저급하고 조잡한 논박이지

만 계속된 유인물 공세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이단 교육을 실시하고 담임 목사님을 겨냥해 이런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 사전 예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한국 교회와 연합기관, CBS를 흠집 내기 위해 유관기관에 민원과 탄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도청·시청·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집중된다. 또 CBS를 폄훼하는 내용의 민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속해 퍼부어질 것으로 보인다.

CBS 특별취재단은 이런 공



세에 대응해 여당과 야당에 접근하려는 신천지 측의 움직임을 포착해 기사나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집단에 십 수 년 이상 장기간 충성하고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 버려진 인물들을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신천지 내부의 동요를 유도하고 있고 최근 감지되는 이만희, 김남희 두 사람 사이의 불협화음에 주목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크리스천 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CBS의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개강



2010년 10월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주제로 첫발을 내딛은 CBS의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이하 CLA)가 드디어 열 번째 문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CLA 10기는 9월 29일(목)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12월 15일 수료예배까지 모두 12주간 8개의 주제 강의와 초기 선교의 역사를 찾아보는 국내 성지순례, ‘해 돋는 마을’에서의 배식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염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LA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만들어낼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에 마련된 CLA 10기의 주제는 ‘크리스천 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이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져야 하기에 먼저 내가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어야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얻을 수 있다. CLA 10기를 통해 바로 그러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독교 찬양사역자 발굴에 앞장”

제27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많은 찬양사역자를 발굴한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이 27회를 맞이하였다. 창작 복음성가제로 시작한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은 가장 전통 있는 찬양대회이다.

그간 CBS는 이 대회를 통해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찬양사역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콜라보 미션과 영성 수련회 등으로 사역자로서의 비전을 키우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제27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종교개혁50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제27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종교개혁50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그 마음을 담아낼 찬양사역자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 마음을 담아낼 찬양사역자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10월 23일, 예선은 10월 29일이며 본선은 서울장신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CBS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2650-7931, 7932로 하면 된다.

“이야기가 있는 조운파 사랑콘서트”

‘CBS 통해야’ 10월 1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CBS 통해야’ 콘서트는 2004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금강산 현지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콘서트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가정, 안전한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은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S

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사랑을 주소재로 <빈잔>, <옥경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 수많은 히트곡과 800여곡의 가요를 작사·작곡한 조운파(73) 선생의 이야기를 담아 진행된다.

10월 1일 저녁 7시 군포시문

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CBS 통해야’ 콘서트에는 조운파 선생과 오랜 지기인 남진을 비롯, 최진희, 김부자, 여행스케치, 걸그룹 에이데일리 등이 출연한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를 위해 미국에서 오는 허영란 목사는 본인의 2집 앨범에 수록되었던 <날개>를 불러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감동을 전해 줄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CBS 통해야’ 콘서트 참가 신청 및 문의는 02)2650-7931, 7932.

CBS 미디어그룹

CLA회보 창간호



CBS 음악 FM : 음악 FM
표준 FM 98.1
CBS
CJ E&S
CBS TV : CH182

CBS본사

5개 부문, 작품상과 개인상 수상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지난 9월 2일 KBS홀에서 개최된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CBS가 아나운서상과 앵커상 등 5개 부문에서 작품상과 개인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대상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1973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국의 에미상'(Emmy Award)으로 불리는 등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시상식도 지난 1년간 지상파 방송을 빛냈던 수많은 시사, 보도, 교양, 예능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대상으로 치열한 예심과 본심 등을 거쳐 공정하게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CBS는 올해 개인상 부문 아나운서상에는 <박재홍의 뉴스쇼>, <굿모닝뉴스>를 진행한 박재홍 아나운서가, 앵커상에는 <이재웅의 아침뉴스>를 진행하는 이재웅 앵커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작품상에서는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에 <김현정의 뉴스쇼> '소리로 기록한 대한민국 음향실록 음향 뉴스 현장'이, 다큐 라디오 부문에 정혜윤 PD가 제작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새벽 4시의 궁전>이, 사회공익 부문에 유창수 PD의 <소리로 보는 영화>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소감에서 이재웅 앵커는 "비판과 진실을 전하는 언론 본연 역할을 CBS가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재홍 아나운서도 "화려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짠맛을 잃지 않는 방송을 하겠다."며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 당일 보도국과 편성국에서 많은 동료 선배들이 대거 참여해 시상식을 뜨겁게 달궜으며, 개인상 부문 수상자로 CBS 한용길 사장이 직접 참여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경남CBS

진주 FM 94.1 오는 11월 개국

경남CBS 진주방송 설립위원회 공식 출범

경남CBS 진주방송이 11월 개국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경남CBS 진주방송 설립위원회'가 공식출범했고, 9월 12일에는 '경남CBS 진주방송 설립추진 감사예배'를 가졌다.

위원장에는 동진주교회 허영학 목사가 선출됐으며, 권영화 목사(강남교회), 황선조 목사(동부교회), 이상식 목사(진양교회), 황성진 장로(삼일교회), 정지영 장로(진주교회)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 팽철수 목사(상문교회)와 정병표 목사(새금산교회), 하종갑 장로(성광교회)가 임원진으로 참여했다.

윤기화 경남CBS 본부장은



"서부경남에 경남CBS 진주방송이 설립됨으로써 기독교 불모지와 같은 서부경남에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고, 성역없는 보도, 수준 높은 문화공연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

다"고 말했다. 주파수 94.1MHz의 경남CBS 진주방송은 오는 11월 개국 예정이며, 진주 전역과 사천 등 서부경남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한다.

광주CBS

'은혜와 감사! 찬양콘서트' 개최

10월 19일, 광주지역 목회자 간담회 개최

광주방송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은혜와 감사! 찬양콘서트>를 마련한다.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7시20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CBS 인터넷라디오 JOY4U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

정미, 최인혁, 안성진, 한웅재, 이삼렬밴드 등이 출연해 CCM을 통한 감동의 물결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되는 이번 찬양콘서트에는 방송선교후원자를 우선 초대해 CBS에 대한 기도와

성원에 보답한다. 한편, 광주방송은 10월 19일, 광주지역 교회 목회자 100여명을 초청해 감사예배와 함께 방송선교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목회자 간담회에서는 CBS의 각종 선교 콘텐츠를 소개하고 방송후원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려 한다.

포항CBS

썸머재즈콘서트 열어

'애플재즈오케스트라'와 손승연 출연



2016 포항CBS 썸머재즈콘서트 '애플재즈오케스트라 with 손승연'이 7월 21일 포스코 효자아트홀에서 관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콘서트는 국내 최정상 재즈오케스트라인 '애플재즈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고 디바로 손꼽히는 '손승연'이 달콤한 재즈 선율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200회 이상 콘서트 경험이 있는 '애플재즈오케스트라'는 감미로운 선율로 공연장을 채

웠다. 공연 전부터 관객들을 설레게 했던 손승연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줬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Let It Go>를 시작으로 <Fever>, <Sway>, <마포종점> 등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특히 양코르 무대에서 <친구여>를 열창하며 공연장을 열기로 채웠다.

포항CBS 권대희 본부장은 "이번 썸머 재즈 콘서트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CBS

미디어선교위, 기도회

청주CBS 합창단, 순회 연주회 가져



청주CBS 미디어선교위원회(위원장 정기영 장로)는 지난 6일 청주나무호텔에서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을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CBS 미디어선교를 위해 지역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찬양으로 감동의 무대 선사

청주CBS 합창단(단장 한태구 장로)은 지난 11일 청주신흥교

회에서 순회 연주회를 가졌다.

상당교회 이은성 장로가 지휘하는 청주CBS 합창단은 <내평생에 사는 동안>, <주께서 주신 기쁨> 등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고, 가경교회 조순희 집사가 간증과 함께 찬송과 복음성가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청주CBS(본부장 광영식)는 '신천지 OUT' 운동 보고를 통해 이단 신천지의 실체와 포교방법,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인들에게 당부했다.

대구CBS

대구CBS 음악홍보대사 위촉식

CBS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연주를 통해 봉사

대구CBS(본부장 김창수)는 지난 9월 5일 저녁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악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음악홍보대사는 대구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 중 CBS를 대표해 활동할 최고 기량의 연주자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CBS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연주를 통해 봉사하고, CBS헌신예배에서는 특별연주로 참여하게 된다.

대구CBS 김창수 본부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CBS음악홍보대사들은 평소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CBS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연주자들로 앞으로 CBS의 선교사역에 함께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대 음악대학 학장이자 테너로 활동중인 이현 교수(대구 중앙교회 찬양대 지휘자)는 홍보대사들을 대표해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CBS와 동역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CBS음악홍보대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테너 이현(영남대 음대학장), 플룻 이월숙(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 월드양상블 비아트리오(리더 이주희, 바이올린), 아코디언 연주자 홍기쁨, 국악인 오영지(소리꾼), 색소폰 연주자 최주열(대구기독병원 내과과장), 가온누리 리코더양상블(리더 이수아).

전남CBS

'어린이 비전캠프' 마쳐

'내 친구 찰리', 키즈클래식 공연 준비

전남CBS는 지난 여름, 2차에 걸쳐 'CBS 어린이 비전캠프'를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말씀을 붙잡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1차 1,000명, 2차 800명 총 1,800명의 교사와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아이들은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벌써부터 다음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기완 본부장을 비롯, 전남CBS의 모든 직원들 역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전남CBS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금 힘내

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귀한 시간이었다.

키즈클래식 공연 준비

전남CBS는 하반기 행사로 10월 말에 키즈클래식 공연 <내 친구 찰리>를 준비 중이다.

<내 친구 찰리>는 클래식 음악을 연극, 무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영상까지 결합해 음악적인 완성도와 재미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어린이 클래식 공연이다.

전남CBS는 작년과 재작년 <인어공주> 공연에 이어 올해로 3회째 키즈클래식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인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 공연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귀한 소금과 빛으로 자라길 기도한다.

전북CBS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 개최

김제시기독교연합회, 지평선찬양축제 개최

이단 신천지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CBS와 CBS완주군 운영이사회가 8월 28일 완주 봉상교회에서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변상욱 CBS신천지특별취재단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신천지가 농촌 등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는 시점에 열려 참석자들에게 매우 유익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군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군기연)는 최근 신천지가 군산 장미동 일대에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를 군산 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군기연은 오는 10월 9일 주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연합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첫날에는 변상욱 CBS신천지특별취재단장이 강사로 나선다.

김제시기독교연합회 지평선찬양축제

김제시기독교연합회가 9월 28일 전북CBS와 함께 지평선찬양축제를 개최했다.

강찬 전도사, 소울싱어즈, 해나리, 사랑이야기 등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찬양사역자들이 출연해 관객들과 하나 되어 깊어가는 가을밤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수놓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지평선찬양축제는 지평선축제의 전야제 행사로 해마다 열리며 지역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2년 동안 모은 저금통 "하나님의 일에 써 달라" 헌금

추석 연휴 막바지인 9월 17일 전북CBS에 소중한 손님이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선사했다.

이날 오전 전북CBS 보도제작국에 김제 봉남교회 김에

순(96) 권사와 며느리가 찾아왔다.

김 권사의 손에는 세월의 때가 탄 묵직한 저금통과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권사가 건넨 저금통에는 모두 4만 6,220원이 들어 있었고, 함께 건넨 봉투에는 만원권 14장이 있었다. 모두 18만 6,220원.

김 권사는 "수년 전 자신의 아들 역시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전북CBS에 헌금했다"며, 2년 동안 저금통에 동전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김 권사는 "약 사먹고 남은 동전을 꼬박꼬박 저금통에 넣었다"며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영동CBS

목회자 부부세미나 성황

영동지역 미자립교회 비전을 제시



강원영동CBS가 영동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들의 행복한 목회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제3회 목회자 부부세미나'가 지난 여름 강릉 썬크루즈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미나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미자립 교회 사역 중인 목회자 부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영동CBS 오준석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척박한 영동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교회론' 강의를 통해 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비전을 품고 사역에 임해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두 번째 강의에는 유중근 한국애착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결혼의 목회적 의미와 성경적 부부대화 방법'에 대해 강의했고 마지막으로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 강의를 통해 날마다 진화하는 이단들의 포교전략 분석에 이어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강원영동CBS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 삼일교회와 함께 목회자 부부세미나를 시작해 매년 이어가고 있다.

대전CBS

세종시운영이사회 창립예배

10월 12일, 공주시 2기 운영이사회 창립 감사예배

대전CBS는 21일 조치원성결교회에서 대전CBS 세종시운영이사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예배는 선한목자교회 강동원 목사의 사회로 대전 대성장로교회 정영협 목사의 기도예 이어 서산성결교회 이기용 목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에서는 조치원성결교회 최명덕 담임목사가 세종시운영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 총회장인 정음성결교회 전병일 목사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전CBS 세종시운영이사회는 세종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장로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전CBS의 선교사역을 지원하고 세종지역 복음

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CBS는 10월 12일에는 공주중앙성결교회에서 공주시 운영이사회 진상선 이사장 취임예배와 2기 운영이사회 창립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대전CBS 공주시 운영이사회는 세종과 마찬가지로 50여 명의 공주지역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됐다.

울산CBS

성경통독앨범제작

울산CBS는 성경을 읽기 힘든 시각장애인신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성경통독앨범제작 프로젝트, 성경통독릴레이'를 진행했다.

신약성경 260장을 울산지역 성도들이 매일 1장씩 릴레이 형태로 통독하는 '성경통독앨범제작 프로젝트, 성경통독릴레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성경앨범제작 프로젝트, 성경통독릴레이'는 시민260명이 참가했으며,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과 포항 전주를

비롯해 울산을 방문한 성도들까지 목소리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에서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

울산시립합창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섰다. 비크리스천도 목소리 재능기부에 동참해 감동을 주었다. 울산지역 성도들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이어진 이번 릴레이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됐다. 녹음한 파일은 USB에 담아 오디오 성경으로 9월 28일 11시 덕하교회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한다.

강원CBS

'사옥 건축활동 활발'

춘천에서는 강원CBS 사옥 건축을 위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춘천 교회는 창립 21년이 되도록 자체 건물을 마련하지 못한 강원CBS의 사옥 건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올해 건축위원회를 조직했다. 춘천 교회는 또한 지난 7월 3일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선교대회를 열어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안디옥교회를 가득 메운 2천여명의 성도들은 강원CBS 사옥 건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교회별 건축헌금 약정과 개인별 한평헌금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춘천

중앙교회와 소양교회 등 13개 교회가 9억여원을 약정했고 개인별로도 1억 가까운 헌금을 약정했다.

강원CBS는 재단이사회로부터 건축 승인이 나는 대로 춘천시로부터 분양받은 춘천시 서면 대지 위에 사옥 건축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축 관련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가을쯤 강원CBS의 서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강원CBS 직원들은 매일 이침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CBS 바이블 칼리지' 개강

성경 66권 스토리 성경을 인터넷 100강좌로

CBS(사장 한용길)와 통독원(대표 조병호)이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강좌 'CBS바이블칼리지, 통독사 조병호의 통통성경학교'를 개강했다.

CBS와 통독원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크리스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바이블칼리지를 개강하게 된 것이다.

'CBS바이블칼리지 통독사 조병호의 통통성경학교'는 성경 일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 66권 전체 스토리 인터넷 100강의'로 진행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나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

지난 9월 1일 개강에 앞서 10일간 사전등록자에게는 부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전등록이벤트'를 실시해 이 기간에 500여 명이 등록을 마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한편 강사인 조병호 박사는 세계적인 성경학자요, 밀리언셀러 저자로서 오프라인 30개 강좌를 통해 성경의 역사와 지리, 문화 등을 통(通)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내년 독일에서 열리는 '비텐베르크 2017 서밋' 공식 스피커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은 주 4회 수강시 6개월, 일 1회 수강시 100일이 소요되며, 수강을 마치면 CBS와 통독원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Certification)을 제공한다.

종교개혁 500주년 Sola Scriptura!

CBS 바이블칼리지

통독사 조병호의 Tong Bible School

통통성경학교

CBS 바이블칼리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
통통성경 Story 인터넷 100강의!
 cbsbible.co.kr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Study the whole Bible in a balanced way using the Tong method.

- 첫째,** 쉽고 체계적인 성경공부!
- 둘째,** 통독사의 성경통독 이야기!
- 셋째,**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신학을 통통으로 공부할 수 있다!
- 넷째,**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행복할 수 있다!
- 다섯째,** 100강의 이수 후, 5세 자녀와 통통성경 패밀리 스쿨을 할 수 있다!

교재

수료증

통통박사 조병호

신청안내

PC : cbsbible.co.kr | 모바일 : m.cbsbible.co.kr

회원가입 ▶ 수강신청 ▶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 ▶ 결제
 ▶ 결제승인 후 등록 완료 ▶ 강의 교재 발송 & 강의 동영상 오픈

계시판 문의 : 회원가입 ▶ 고객센터센터 ▶ 문의하기
 전화 문의 : CBS바이블칼리지 T.02-2650-7800, 7801
 교육비 : 30만원 (주교재 포함)